

대학생의 도덕시험

“세상엔 아직도 믿을 수 있는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명후이왕] 어느 해 여름의 저녁, 제가 집으로 돌아가면서 큰 약국을 지날 때 문 앞에 20대의 젊은이가 누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팔과 두 다리가 모두 쪽 뻐어 있고, 옆에는 음료수 한 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6월이라 길바닥은 델만큼 뜨거워 길을 걸어가면 뜨거운 열기가 몸으로 덮쳐왔습니다. 저는 스쿠터를 세워 놓고 이 젊은이가 숨을 쉬는지 한참을 지켜봤으나 숨을 쉬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젊은이 왜 그래요? 취한건가요? 아픈 건가요?” 라며 불러 깨웠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으니 저는 곁에서 그 젊은이를 지키고 있으면서 전화를 120에 걸어야 할지 110에 걸어야 할지 망설일때 갑자기 젊은이가 벌떡 일어나 앉아 말했습니다. “전 괜찮아요, 죽은 척 한 거예요! 저는 막 졸업한 대학생인데 집안 형편도 아주 좋아요. 제 모든 친구들이 요즘 사회는 길바닥에 쓰러져도 아

무도 상관할 사람이 없고, 자동차가 치고도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병원 진료도 돈을 못 내면 상관할 사람이 없다고 말해서, 한번 해보고 싶어 여기에 두 시간 이상 누워있었어요. 오가는 사람은 많은데 정말 상대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주머니는 어떻게 제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나도 아이가 있는 엄마인데 너는 내 아이 같았어. 무엇 보다도 나는 파룬궁을 수련하는 사람이야. 사부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의로 다른 사람을 돕고, 곳곳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생각하라고 가르치셨단다. 그리고 파룬궁은 인연을 말하는데, 우리가 만난 것은 인연이 닿은 것이니 차마 너를 버리고 갈 수 없었어. 그렇지 않으면 평생 자책할 테니까.”

젊은이는 매우 감동해 연거푸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감사합니다. 저를 기차역까지 데려다주실 수 있나요? 너무 피곤해서 못 걸을 것 같아요.” 저는 젊은이를 스쿠터에 태웠습니다. 역 앞에 거의 다 왔을 때, 그 젊은이는 내려달라면서 “아주머니, 그만 배웅해주셔도 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젊은이에게 역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주고 여비가 있느냐고 물었더니, 젊은이가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있어요. 저는 지금 바로 표를 끊고 밤새 집으로 돌아가 저의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세상에 믿을 수 있는 좋은 사람은 바로 파룬궁을 수련하는 사람이라고 알려줄 거예요!”

‘파룬궁’은 또 파룬따파 (法輪大法) 라고 하며, 리홍쯔 (李洪志) 선생이 1992년 5월에 전해 온 불가상승 (佛家上乘) 의 수련대법이며 ‘진선인 (真善忍)’ 을 근본 지도로 한다. 파룬따파는 병을 치료하고 몸과 마음을 정화하는데 기이한 효과가 있기에 아주 빨리 전 세계에 전해졌다. 파룬따파는 사회 온정, 사람들의 신체소질과 도덕수준을 제고시키는데 있어 거대한 정면작용을 일으켰다. 24사에서 사람들은 선과 악에는 보응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진선인 (真善忍)’ 은 바로 중화고대문화의 선을 향해 덕을 쌓는 데로 사람을 이끌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덕을 쌓아 복보를 받는 데로 회귀하게 한다. 불행하게도 1999년 7월 강택민은 파룬궁 수련자 인수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자기의 정권과 이익에 위협을 느껴 국가의 전부 기계와 선전기구를 이용해 ‘진선인 (真善忍)’ 을 신앙하는 좋은 사람에 대한 박해를 발동했다. 따라서 사회 도덕이 급격히 추락되면서 지금은 “노인이 넘어지면 일으키는가 일으키지 않는가”가 난제가 돼버렸다.

아일랜드 국경일 대행진에서 파룬궁 환영받아

[명후이왕] 2년간의 전염병을 겪은 후 2022년 아일랜드 국경일 대행진은 3월 17일에 아일랜드의 오래된 도시 골웨이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골웨이가 2022년 '유럽 문화 수도'로 선정되면서, 이날 약 3만여 명이 대행진에 참가했는데, 해당 도시 최대 규모의 국경일 진풍경이 펼쳐졌다.

아일랜드 파룬따파(法輪大法) 수련생들은 성대한 행사에 초청받아 관객을 위해 파룬궁 공법을 시연했으며, 어린이 제자 행렬과 요고팀 공연도 선보였다. 파룬궁 행렬은 가는 곳마다 박수갈채를 받으며 뜨거운 환영을 받았다. 대행진이 끝난 뒤, 골웨이 시장은 파룬궁 수련생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해 지지를 표명했다.

파룬궁 단체가 연단을 지날 때, 사회자는 특별히 "파룬따파는 중국 전통 수련법으로 '진선



▲ 파룬궁 수련생은 아일랜드 국경일 대행진에 초청 받았다. 오른쪽 그림: 골웨이 시장(중)과 파룬궁수련생이 함께 찍은 기념사진.

(真善忍)'을 준칙으로 하며, 1992년부터 전해져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와 지역에서 1억 명 이상이 수련하고 있다.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라고 소개했다. 콜레트 코놀리(Colette Connolly) 골웨이 시장은 파룬궁 반박해를 매우 지지했고 대행진이 끝난 뒤 파룬궁 수련생들과 만나 "중국공산당(중공)의 만행에 대해 침묵하는 건 범죄다."라고 밝혔다.

앞서 2018년 골웨이 시장은 시

의회를 통해 아일랜드 정부에 가능한 빨리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의 '장기 밀매에 대한 협약(The Convention against Trafficking in Human Organs)'을 비준해 불법 장기 이식을 범죄로 규정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아울러 아일랜드 정부가 중공에 파룬궁 수련자에 대한 박해 및 강제 장기적출 범죄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도록 호소했다.

파룬궁의 기적으로 새 삶을 얻은 스웨덴 교사

[명후이왕] 스웨덴 예테보리에 거주하는 자넷(Janett)은 4년 전 암 환자였다. 그녀는 2019년 수술과 항암치료를 받았지만 호전되지 않았고, 오히려 항암치료 부작용으로 몸은 더욱 나빠졌다. 하는 수 없이 자넷은 서양의학을 포기하고 중의학으로 통증과 고통을 완화하려 했고, 동시에 하늘에서 은혜를 하달할 것을 기대했다. 놀랍게도 자넷은 현재 암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 어찌 된 일일까? 그녀는 정말로 영단묘약을 찾은 것일까?



■ 희망이 없을 때 행운의 신이 조용히 다가왔다

자넷은 몇십 년 풍부한 교육경험이 있는 교사로, 두 아들의

어머니이자 두 손녀의 할머니다. 그녀는 일도 열심히 하고 생활도 풍족했지만, 불행히도 난소암에 걸려 모든 것이 망가졌다. "2019년 저는 수술을 했고 3개월간 세 차례 고통스러운 항암치료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제게 4차 치료를 권했을 때, 저는 정신이 붕괴될 것 같습니다! 저는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항암치료는 제 몸을 더 피곤하게 만들었고, 매일 힘이 없어 너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자넷은 더는 서양의학을 믿지

않았지만, 이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막막해 비관에 빠졌다. 희망이 없을 때 행운의 신이 조용히 다가왔다.

얼마 후 자넷은 몇 년 전 인터넷에서 찾은 중의학 의원을 찾아가 치료했다. 중의사 왕 박사는 파룬궁 수련자였는데, 파룬궁을 자넷에게 소개했고, 자넷은 2020년 현지 파룬궁 수련자들이 개최한 '9일 학습반'에 참가했다.

"저는 파룬따파 (3면에 계속)

(2면의 계속) (파룬궁)를 수련했습니다. 대법이 제 몸에서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자넷은 웃으며 말했다. “스무 살부터 저는 정신적으로 향상하고 싶습니다. 많은 곳에 갔었고 각종 방법을 시도해봤지만, 모두 실패해 실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파룬궁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저는 마음이 열렸고 뜻밖에 원하던 것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그녀는 전화위복으로 인생에서 줄곧 고생스럽게 찾던 고덕대법을 만났다.

■ '9일 학습반'에서 나타난 평생 잊지 못할 기적

2년 전 참가한 '9일 학습반'을 떠올리자 자넷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2020년 2월 9일, 학습반에서 저는 신기한 일을 경험했어요. 파룬궁의 신기함과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정말로 기적이었어요!” “어찌 된 일인지 제가 거기에 앉아 신체적인 고통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동영상 설법을 보기 전, 몸에 에너지가 있는 걸 확실히 느꼈고 온몸에서 열이 났습니다. 에너지가 갈수록 강해졌고 정신 상태가 하루하루 좋아졌으며, 마지막에 좋지 않은 증상이 전부 사라졌습니다. 온몸은 가뿐해졌고 걸어도 힘들지 않았으며 계단을 아무리 많이 올라가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사부님께서 제 몸의 나쁜 물질을 전부 제거해주신 겁니다. 안에서부터 밖까지 온몸이 정화됐습니다. 그런 느낌은 처음이었습니다. 그것은 행복하고 아름다운 순간이었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반에 참가한 후 제가 만난 불행과 고통은 이날을 위해서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운 좋게 인연이 닿아 '진선인 (真·善·忍)' 우주 대법을 얻었습니다. 사부님께서 제게 해주신 모든 것에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 2020년 2월 자넷 (세 번째 줄 왼쪽 두 번째)은 운 좋게 파룬궁 '9일 학습반'에 참석했다. 학습반이 끝날 때 그녀는 다른 수련생과 함께 기념촬영도 했다.

■ 항상 사부님의 자비로운 보호 느껴

자넷은 파룬따파 설법과주요 저서 <전법륜 (轉法輪)>을 읽고 사람이 병에 걸리는 모든 근본 원인은 업력이고 괴로움을 겪는 것은 업을 갚는 것이라는 걸 알았다. “제가 병업을 감당할 때 사부님 법신께서 제 곁에 있는 것이 느껴졌고 시시각각 저를 보호해주셨습니다. 마음이 편안하고 특별히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수련한 후 얼마 되지 않아 몸에서 다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마치 예전 증상과 같았습니다. 저는 피곤해졌습니다. 어느 날 눈앞에 갑자기 3개의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시간이 짧고 뜻은 모호했지만 화면은 또렷했습니다. 시커먼 물건을 잔뜩 담은 쓰레기봉투가 거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쓰레기는 나쁜 물건이니 버려야 한다. 사부님께서 저를 도와 몸을 정화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부님의 점화는 자넷에게 희망과 자신감을 주었다. 순간 그녀는 강대한 에너지가 자신을 에워싼 것을 느꼈다. 사부님의 도움으로 얼마 후 자넷은 이 큰 난관을 넘겼다. 그 후 몸은 더욱 가볍게 변했고 마음도 유쾌해졌다. “저는 사부님께서 <전법륜 (轉法輪)>에서 말씀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직접 겪었습니다. 사부님 말씀이 진실이라는 것을 더욱 믿게 됐고 앞으로 '진선

인 (真·善·忍)'에 동화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겁니다.”

■ 관념을 바꾸니 생활이 즐거워하게 느껴져

자넷이 일상생활에서 '진선인 (真·善·忍)'의 표준에 따라 끊임없이 자신의 문제를 찾으니 일하고 생활하는 각 방면에서 큰 변화가 발생했다. 특히 가족과 지내는 문제에서 각도를 바꿔 바라보니, 마음이 매우 가볍고 따뜻해졌으며 심성이 승화된 후의 아름다움을 경험했다.

수련 전 오랫동안 교사를 했던 자넷은 늘 남을 바로잡아 주는 것이 습관이 됐다. 그녀의 큰아들은 이미 사업에 성공하고 결혼해 아기를 낳았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었다. 그녀를 가장 골치 아프게 한 것은 작은아들이었다. “작은아들을 좋게 변하게 하기 위해 아들의 생활에서 공부까지 저는 큰 대가를 치렀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과 달리 작은아들은 저를 실망시켰습니다. 저는 자주 아들을 질책했고 심지어 화를 냈습니다.” 수련 후 자넷은 마음을 조용히 하고 자신을 반성했고, 집착심을 찾아 닦아버렸다. “제 인내심이 늘어나자 작은아들도 점차 좋게 변했습니다. 올해 비교적 좋은 고중에 입학했습니다.”

그녀는 두 아들이 자신의 거울 같으며 자신이 내려놓지 못한 많은 집착심을 비춰줬다고 말했다. “저는 어릴 때 저를 엄격하게 대했던 아버지를 미워해 만나지 않았습니다. 수련 후 저는 마음속으로 아버지를 이해하게 됐고 아버지를 만나러 갔고 관심했습니다. 아버지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또 저는 제가 여동생에게 의지한다고 인식하고 이를 바로 잡았습니다. 여동생을 위해 더 배려하기 시작했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해서, 여동생을 번거롭게 하 (4면에 계속)

경고사례 더욱 큰 비극을 피 면하기 위해 어서 깨어나자

■박해에 참여해 폐암으로 죽다

[명후이왕] 허우밍잉 (侯明英) 은 지엔양시 (簡阳市) 지엔성 흥담담비공장 합성차간에서 일하는 공인이며 말재주가 좋다. 그는 중공 강택민집단이 파룬궁을 모함하는 거짓선전을 믿고 따라서 대법을 모욕하는 즈양시 (资阳市) 잉지에전얼어후 (迎接镇二峨湖) 세뇌반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하는 소굴)에서 방교 (幫教)와 배교 (陪教)에 가담했다. 금전의 유혹으로 그는 그의 말 재간으로 파룬궁수련생을 유도 및 미혹시켜 '진선인 (真善忍)' 신앙을 포기하게 했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파룬궁수련생에게는 강제 수단으로 핍박해 수련을 포기하게 했다. 최악의 검은 돈을 받은 대가로 결국 자신에게 악과를 빚어 2022년 1월 9일 약 65세인 그는 폐암으로 지극히 고통스러운 시달림속에서 일생을 마쳤다.

■검은 돈을 받은 후 응보를 받다

양징밍 (楊靜明, 남, 50대)

은 라오닝성 후루다오 (葫蘆島) 시 룡강 (龍港) 구 자오후이지역 사회 (朝暉社區) 비하이위안 (碧海苑) 1단원 1호에 살고 있었다. 양징밍은 여러 차례 사악한 세력과 협조해 파룬궁 수련생 박해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한번은 그가 타지에 일하러 갔을 때 파룬궁 수련생 한 명이 그에게 진상을 알려줬는데, 그는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악의로 신고해 수련생은 당장에서 납치됐다. 현지로 돌아온 후 양징밍은 지역사회에서 5백원의 검은 돈을 받았다. 그러자 응보가 곧 뒤따랐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아내가 뇌암에 걸려 1년 만에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양징밍은 뇌우칠 줄 모르고 또 여러 차례 몇명 파룬궁 수련생 집에 가서 진상을 알고 싶다는 명의로 진상 자료를 수집해서는 파출소에 받쳤는데 이후 보조 경찰이 됐다. 그러나 출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는 뜬금없이 휠체어를 타게 됐고 몇 달 후 2021년 10월에 기이하게 세상을 떠났다.

(3면의 계속) 지 않았습
니다. 이렇게 우리 자매는
이전보다 더 친밀해 졌습
니다.”

현재 자넷은 건강을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성격이 부드러워졌고 가정은 더욱 화목해졌다. 여동생 가족은 그녀가 딴 사람으로 변했다고 말했다. 주변 사람들도 직접 대법의 신기함을 목격했고 중공의 박해 진상을 알게 됐다.

■여교사의 소원

중의 왕의사의 소개에 따르면 '9일 학습반'에 참가한 이후 그녀는 병원을 찾아 치료한 적이 단 한번도 없다. 현지에서 매번 9일 학습반을 개최하면 자넷은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빠지지 않았다. 지금 그녀는 모든 파룬궁 수련자와 마찬가지로 각종 진상 알리기 활동에 참가해 중공의 거짓말에 속은 사람들을 구하고 있다. 파룬따파 홍전 (洪傳) 30주년인 올해에 자넷은 명후이 기자의 취재를 받았는데, 자신이 2년간 수련 과정에서 진실하게 느낀 것을 말했다. “인간 세상의 언어는 너무 빈약합니다. 그 어떤 단어도 제가 사부님에 대해 존경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지 못합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파룬궁의 기적같은 신기한 경험을 세상 사람들과 나누려 합니다. 제 소원은 모든 선한 사람이 진상을 알게 돼, 진정으로 선악과 시비를 명확히 구별하기를 희망합니다. 복잡한 세상에서 자신을 위해 밝고 올바른 인생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라고 전했다.

■ 박해소식 ■

길림성 연변주 화룡시 파룬궁수련생 손경국 (孫慶菊) 불법 납치되다

파룬궁수련생 손경국과 그의 두살 넘는 외손군은 길림성 화룡시 팔가자진 파출소에 의해 납치되고 가택수색을 당했다. 현재 모든 연결이 끊겼다.

길림성 화룡시 두 파룬궁수련생이 불법 납치되다

2022년 4월 8일 정오 화룡시 두 여성 파룬궁수련생이 불법 납치됐다.

‘쇠사슬녀’ 사건에서 보다

[명후이왕] 최근 중국 쉬저우 (徐州) ‘쇠사슬녀’ 사건이 인터넷에 폭로되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시나닷컴 웨이보에서만 100 억 여 회 접속됐고, 관심도는 동시기 북경 동계올림픽의 열기를 훨씬 초과했다.

인터넷 동영상에서 모두 볼 수 있는데, 흑한 계절에 이를 뽑고 허끝을 잘라 악물을 주입해 성대를 훼손하는 등 비인간적 학대를 받은 인신매매 피해자가 8명의 아이를 낳아야 했던 끔찍한 사건이다. 그녀는 흑한에 쇠사슬로 목이 묶여 맨발에 얇은 옷만 걸치고 창도 문도 없는 누추한 집에 갇혀 있었는데, 온돌 위에는 낡은 솜이불과 얼어붙은 만두가 버려져 있었다.

■중공은 ‘진선인 (真·善·忍)’을 탄압하여 중국사람의 도덕을 철저히 회멸시키다

20여 년 동안 중공은 ‘진선인 (真·善·忍)’ 수련인을 잔혹하게 탄압하여 중화 문명의 초석을 근본적으로 뒤흔들었고 중국인들의 도덕적 본성을 파괴했다. 관청 부패에서 민간의 부패까지 중국사회는 이미 중공 악마에 의해 유린당해 만신창이가 되었다. 대법 수련자의 장기를 산채로 적출하는 등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없었던 사악함이 광범위하게 자행됐는데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그 외 어떤 죄악인들 일어날 수 없겠는가?!

수십 년간 잔혹한 중공의 세뇌로 중국인들은 자신의 뿌리와 전통문화를 잃어버려 도덕적 양심과 건전한 상식을 말할 당했다. 피비린내 나는 전제통치가 중국인의 등줄기를 휘게 하여 기본적인 인권은 사치가 되었다. 그러므로 폭정에 굴복한 사람들에게 생명에 대한 무관심은 정상적인 사회상태가 된 것이다. 사람들이 이 사건에서 본 것은 처참하게 당한 무력한 한 여성의 모습, 깡패무리의 인간쓰레기, 비열함, 비천함, 동족의 악습과 추악함, 각급 기관과 중공사당의 후안무치, 사회제도의 혼란과 무질서, 밑바닥까지 타락한 도덕 등인데, 이 모두는 사악한 중공이 직접 손으로 만들고 방임한 것들이다.

■정부의 온정과 민간에서 진상을 요구

중공이 태평성세를 동계올림픽으로 치장하여 국제사회에 가상을 보여주고 있을 때 갑자기 ‘쇠사슬녀’ 사건이 터져 오랜 기간 기만당하고 우롱 당하던 민심이 들끓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사건을 밝혀 의문을 풀어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대응은 무엇 하나 시원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사슴을 말이라 (指鹿爲馬)’고 하며 덮을수록 모순이 드러나고 있어 오히려 민중의 분노는 더욱 커지면서, 당국의 거짓말이 하나하나 폭로되면서 급기야 민중의 감정을 격앙시켰다. 800 명을 초과한 인대, 북경대학, 칭화대학 산동대학의 교수가 서명하여 공개조사 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처럼 거세게 조사, 진상, 공정을 요구하는 강력한 여론에 직면해 있는 중공은 사회 안정을 내세우며 여전히 낡은 수법을 재연하고 있다. 차단, 삭제, 칭호 수여, 입 막기, 관변 정론 (官方定論), 희생양, 댓글 알바 (五毛水軍), 여론 조작, 세탁, 경찰 담합, 체포, 실종 등등이다. 심지어 하룻밤 사이에 마을을 겁겁이 철벽으로 둘러싸고 통행을 금지시켰다.

■인심이 변하고 있다 진상의 힘

만약 중공이 역대로 정치운동을 벌여 얼마나 많은 사람을 박해하고 학살했는지를 말한다면, 좀

나이가 든 사람은 다소 공감할 수 있지만, 젊은이들은 숫자에 불과할 뿐이다. ‘세월이 고요하다’ 는 오도, ‘부유해졌다’ 는 거품, ‘대단하다’는 환상 등으로 중공이 역사와 정보를 봉쇄해 가상의 세계를 만들어 그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혼돈스럽게 한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누적된 중공의 죄악을 잊게 하고, 박해의 사악이 언제든지 자신의 머리 위에 덮칠 수가 있음을 모르게 하여 타인의 불행에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쇠사슬녀’의 비참함이 생생하게 드러남에 따라 그동안의 적막감이 깨져 사람들을 모두 꿈에서 깨어나게 한 것과 같다. 비로소 많은 젊은이가 자신과 관계가 있다는 것은 느낄 수 있게 된 것인데, 입술이 없어지니 이가 시린 것이다. 그들은 냉엄한 현실 앞에 나서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게 된 것이다. 인심은 변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이 참안이 자신에 대한 충격을 썼을때 이런 변화를 해석했다. “본래는 그가 지옥에 있다고 생각돼 나는 그를 구하려고 소리냈는데 수많은 시간이 흘러도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재서야 나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나도 지옥에 있다는 것을.” (자유 아세아 2월 23일 에 발표)

경제학자 리형칭 (李恒青) 이 평론에서 해석했다. 진상의 힘은 쉬저우 (徐州) 사건의 관건이다. 공산국가에 (6면에 계속)

(5면의 계속) 서 가장 희귀한 상품은 진상이다. ‘쇠사슬녀’를 감싸고 중공은 줄곧 진상을 차단한다. 진상은 독재정권으로 말하면 치명적이다. 생각해보라 체르노베리의 진상이 전소련에대한 회멸적인 작용을 보면 알 수 있다.

‘쇠사슬녀’는 눈앞에 펼쳐진 진실감을 나타냈다. 불러일으킨 공포감은 사람을 진감시킨다. ‘세월이 고요하다’가 이미 대지를 흔들고 산을 움직였다. 미국에 있는 시사평론원 탕징위안은 표시했다. 무수한 사람이 주목하고, 전달하며, 소리치는 과정에서 천천히 자신의 원래 고유하고 있었던 선념을 되찾았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선념이 지닌 거대한 에너지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동요할 수 없다는 것들을 개변시킬 수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

■ 파룬궁 박해 진상은 여전히 중공에의해 엄밀히 봉쇄받다

파룬궁수련생이 받은 박해는 감옥에서 중공의 백가지 잔혹한 고형을 포함한다. 그의 비참한 정도는 그 어디에도 없었고 ‘쇠사슬녀’가 받은 학대보다 훨씬 초과했다. 그러나 사실진상은 오늘날 까지 중공에의해 엄밀히 봉쇄되고 전면적으로 은폐됐다. ‘쇠사

슬녀’ 로인한 파동으로 볼때면 아마도 사람들이 진상을 알게 되는 날까지 멀지않았다.

■ ‘쇠사슬녀’사건은 민분을 일으켜 대륙민중들이 중공을 탈출하다

중공정부는 줄곧 ‘쇠사슬녀’사건의 진상을 은폐하려해 민중들이 분노를 일으켰다. 민중들은 분분히 대기원에 퇴당성명을 발표해 중공의 당, 단, 대조직에서 탈퇴하고 중공의 악행을 규탄했다.

판창성(潘长生) 등은 ‘삼퇴’망에 적었다. “쉬저우 ‘쇠사슬녀’사건을 금방 들었을때 처음 ‘생체 장기적출’을 들었을 때의 감각과 같았습니다. 정말로 접수하기 싫었고, 대면하고 싶지 않았으며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접수하기 어려워도 이것은 사실이 있습니다.”

대륙민중 리싱귀(李兴国)는 탈당성명할때 말했다. “최근 쉬저우 여덟아이 엄마 ‘쇠사슬녀’사건이 인터넷에 들끓고 있을때 중공은 처음부터 끝까지 결국 덮어 감추려 했고 수단은 멍청하고 사악하기 그 지없었습니다! 보통사람도 피



해자대신 절망을 느꼈습니다. 중국인이여, 깨어나요. 그 것이 하는 일은 끝없는 더욱 사악 뿐인데 아직도 탈출하지 않으면 언제까지 기다리겠는가?”

민중 지런형(黎人耳)은 삼퇴할 때 말했다. “쉬저우 여덟아이 엄마 ‘쇠사슬녀’사건은 나더러 공산당의 사악을 철저히 인식하게 했습니다. 과거 공산당이 나쁜 일을 많이 한것을 알았으나 미망속에서 사고를 했어도 감정적으로는 늘 그의 사악함을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쇠사슬녀’ 사건은 나를 철저히 정신차리게 했습니다. 자신이 줄곧 거짓말속에서 생활한 것을 후회합니다. 오늘에야 이 사악한 공산당을 인식했습니다. 오늘 퇴당을 선포합니다!”

전 북경 정법위 부서기 9년 징역형 선고받아

[명후이왕] 전 북경 정법위 (정치법률위원회) 부서기이자 정협 부주석 리웨이 (李偉) 는 3 월 18 일 텐진 중급법원에서 9년 형과 100 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가 받은 뇌물과 이자도 압수됐다.

1963년 5월 생인 리웨이는 2001년 7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북경 정법위 서기와 북경 정협 부주석을 지냈다. 그가 맡았던 다른 직책에는 북경 정부 부사무총장, 상임 부국장, 사무차장 등이 있다. 그는 2020년 8월 25일 ‘엄중한 기율 위반’으로 조사를 받았다. 왕안순(王安順)이 2007년 4월부터 2012년 7월까지 북경 정법위 서기로 재직했을 때 리웨이는 사무차장으로서 파룬궁 탄압을 지휘했다. 특히 2008년 1월 북경시 정부와 북경 정법위가 올림픽 명목으로 국내 탄압 운동을 벌이는 동안, 리웨이는 파룬궁박해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거리와 지역사회에서 진행 상황을 면밀히 감시했다.

명후이 정보에 따르면 왕안순과 리웨이가 5년간 북경 정법위를 이끄는 동안 최소 18명의 파룬궁수련자가 박해로 목숨을 잃었고 3088 명이 체포됐다.



▲ 리웨이 심판받고 있다.